

屋 内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종합 전자·통신업체인 G. E社 5개의 형광自社 로고가 펍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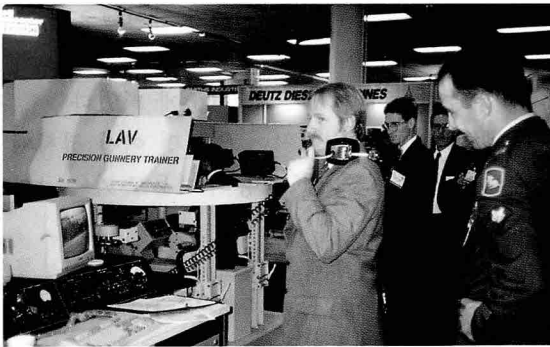
Litton사는 Ranger TM 개인 夜視鏡을 내놓았다 신형인 M 993은 수출에 6~7개월이 소요된다



미국의 중요기술상품인 「생산체계 종합」의 선두주자인 웨스팅하우스社は 「헬 파이어」 유도탄(3종)을 내세웠다



통신·전자·광학장비를 부문별로 선보였던 Loral社 自社の 知名度를 믿음인지 답변에는 인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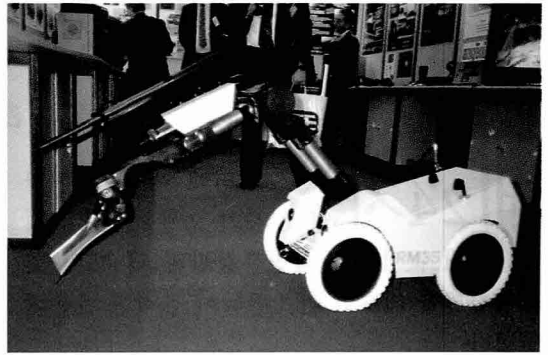


Textron사는 自社の 지휘통제시스템을 최고라고 하면서 칼라 디스플레이를 통한 實演도 함께 곁들였다 세계 대부분의 전시회에 출전하는 이스라엘 이번에는 유도위주의 IMI사와 Rafael 항공사가 참여했다



1982년 美 국방부의 「최우수 품질관리상」을 획득한 Magnavox社は SMART-T 레이더를 내세웠다 브라질에서는 유일하게 출전한 Avibras社 코너 3종의 로켓을 발사하는 ASTRO-II를 강조했다





미국내에서 개최되는 관게로 4분의 3 이상이 미국 업체였음에도 프랑스관은 돋보였다
 사진 오른쪽은 프랑스 GIAT Industries社의 RM 35 Autorobo. 1990년에 개발되어 7개국 11개 軍에서 운용되고 있다
 12밀리 구경의 소총이 장착되어 있으며, 얇은 노트도 집을수 있는 다목적 로봇임을 實演을 통해 보여주었다



2개 업체가 출전했던 스웨덴의 Bofors사 코너 모습
 RBS 90 대천차 유도무기 등 自社의 기술수준을 강조했다

영국의 BAe社 모습. 프랑스에 비해 덜 활기가 있었다
 輕기관총으로 무장된 지프 전시만이 뚜렷했다



屋 外
 웨라톤 워싱턴과
 옴니 웨라 사이에
 원형으로 屋外 전
 시가 있었다. 20여
 개 업체가 참여했
 으며, 스웨덴의 민
 ·軍 공용 다용도
 車가 돋보였다. 오
 른쪽은 G. D사의
 Fox NBC 차량



스웨덴 Indevex AB社의 Flextrac Mpv 다용도 車
 눈지대, 雪原, 개천 등 어떤 약조건도 극복한다

BMV사의 30밀리 대공장갑차량
 새로 적외선 조준경을 장착했으며, M113 차체를 이용한다

